

강경애의 『인간문제』 연구

— 병과 음식의 메타포를 통한 몸 읽기

이 경*

차례

1. 들어가기
2. 주체 중심주의와 몸
3. 음식과 질병을 매개로 한 몸의 대응양식
4. 상호육체성의 윤리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몸담론으로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권력은 인간을 몸으로 환원시켜 도구화하고 인간은 몸의 욕구를 통해 그 권력에 이의 제기를 한다.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재산 혹은 지식을 가진 주체는 타자를 육체로 간주하지만 타자는 바로 그 몸의 욕망을 통해 권력에 대응한다. 음식과 질병은 몸으로 경험하는 제도의 폭력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그것에 대하여 인간임을 선언하는 유효한 표지가 된다. 몸의 욕망을 뚜렷이 각인시킴으로써 소설은 구조적 모순의 통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항하는 능동성과 상호육체성의 윤리적 차원을 확보한다. 상호육체성을 통해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서 공감과 연대의 관계로 변화하는 인물관계를 떠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적 저항방식의 가능성 또한 확보된다.

핵심어 : 주체 중심주의, 상호육체성, 몸담론, 질병, 음식, 비체

* 한국국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기

1930년대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이자 동시에 공업용 원료의 공급지로 재편하는 등 수탈을 극도로 강화하던 시기이다. 이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탈로 인한 농가경제의 파탄이, 도시지역에서는 노동착취로 인한 도시노동자·빈민의 몰락과 그에 이은 노동자계급의 형성 및 이들의 저항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촌에는 소작쟁의가, 도시에는 파업이 조직화·장기화되기 시작하였다.¹⁾ 소설은 이와 같은 사회적 현실의 묘사에 탁월하다.²⁾ 민족과 계급 그리고 성의 억압이 중첩된 현실의 갈등구조는 강경애 소설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요소이다. 식민지 근대를 배경으로 농촌의 하층민에서 도시의 노동자로 변모하는 여성인물을 서사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강경애의 『인간문제』³⁾는 다층적 모순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농촌의 소작인과 도시의 공장근로자들이 식민지 자본주의의 폭력에 시달리는 과정, 특히 여성인물의 곤경을 강경애는 꺾진하게 묘사해왔으며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 점에서 강경애 소설의 의의를 찾는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입체적 통찰이라는 평가⁴⁾와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모순으로부터 여성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데 의의를 두는⁵⁾ 분석이 이를 잘 보여준

1) 강이수,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사회학자가 본 우리 소설,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336~337쪽.

2) 『인간문제』를 풍부하고도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통해 전형적 환경과 전형적 인물을 형상화한 성과라고 평가한 이상경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 출판부, 1997, 81~86쪽; 이상경, 『여성문학의 두 얼굴』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민음사, 2006, 157~176쪽.

3) 이 글은 최원식 교수가 편집한 강경애, 『인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하 인용에서의 숫자는 이 책의 해당 쪽수를 의미한다.

4) 하정일, 『강경애 문학의 탈식민성과 프로 문학』,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16쪽.

다. 계급문제를 주요모순으로 부차적 모순으로 여성문제를 설정하면서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다⁶⁾거나 계급서사와 여성서사의 틈새에 주목하여 계급서사로 귀속되지 않는 잉여에서 여성성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⁷⁾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의 소설은 리얼리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인정받아 온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리얼리즘의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⁸⁾과 아울러 젠더인식에 있어 한계를 지적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적 여성의식으로 회귀한다는 지적⁹⁾이 대표하듯, 하층계급 여성이 입은 피해의 묘사에는 지극히 충실했으되, 그 극복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몸담론을 통한 접근은 이와 같은 기존의 평가를 넘어서게 한다.¹⁰⁾ 몸에 체현된 식민지 근대의 복잡성에서 식민지 근대의 지배구조와 근대적 인식론을 전복할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몸은 각종 모순이 겹집되는 장소인 동시에 그 모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식민지 근대의 피해자의식을 넘어 이를 극복해나가는 반작용의 양식을 떠내는 일인 것이다.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서구철학에서 몸은 이성적 주체가

5)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 247~266쪽.

6) 홍기돈,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여성』, 김인환 외, 앞의 책, 94~95쪽.

7) 서영인, 『강경애 문학의 여성성』, 김인환 외, 앞의 책, 107쪽.

8) 소영현, 『‘육망’에서 ‘현실’까지, 주체화의 도정: 강경애의 『인간문제』 검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1, 33쪽.

9)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화사 연구』 제23호, 민족문화사학회, 2003, 260쪽; 김경수, 『강경애 장편소설 재론』, 강경애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 심포지엄 발표문, 2006. 5. 12.

10) 소설은 식욕과 병에 시달리는 몸의 묘사에 탁월하지만 몸담론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중인물의 육망이 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소영현, 앞의 글, 37~38쪽.

11)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4, 33~56쪽.

초월해야 하는 비천한 물질 혹은 정신의 도구로서 설명되어왔다. 몸과 정신을 나누고 정신에 우선권을 주는 이성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은 주체와 타자의 이원론으로 전이된다. 이성중심주의는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대상화하기에 유아론唯我論으로 귀결되기 쉽다. 나의 정신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타인은 오로지 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적 존재로 타인은 육체로 인식되기에 유아론과 정신주의는 상호보충적이다. 서양사상의 전통을 이루어온 이성중심주의가 반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이와 같은 유아론적 지향 때문이다.

이처럼 타자를 육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이성중심주의의 폭력임을 지적하는 데서 몸담론은 출발한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니체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몸담론의 가장 큰 이점은 상호성, 타자성의 윤리이다. 후설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의식이 몸을 통해서만 세계의 일부로서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고 메를로 폰티는 몸의 능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근본적으로 몸주체인 인간은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각대상을 형태화하고 의미화하면서 그 대상과 교류한다. 나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나 정신이 아니라 세계,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몸이다.¹²⁾ 몸/정신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메를로 폰티의 분석은 엘리자베스 그로츠에 의하여 페미니즘의 관심사와 연결된다. 성차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중심주의와 남근주의의 공모에 대한 그의 비판은 페미니즘적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지각에 우위성을 부여하는 그의 이론은 여성적 몸의 서사에 중요한 통찰의 지점을 제시한다. 이에 그로츠는 뫼비우스의 띠라는 은유를 동원하여 마음과 몸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

12) 김진아, 『시각과 쟁점: 여성의 몸,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성의 몸』, 한국여성연구소, 창작과비평사, 2005, 20~28쪽.

며, 몸을 여성주의 인식론과 존재론의 가능성으로 보고자 한다.¹³⁾

몸담론의 진정성은 상호육체성에 있으며 진정한 몸철학은 타인에게서 출발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조광제는 이를 더욱 밀고나간다. 나/타자는 정신/육체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만지면서 만져지는 상호육체성의 지평에 자리한다. 몸으로 등장하는 타인의 존재는 몸으로 구성되는 나의 주체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주체를 형성하게 한다.¹⁴⁾ 몸이 상호간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상호육체성은 연대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몸담론을 원용하여 이 글은 소설에 나타난 몸의 능동성을 탐색한다. 권력이 타자의 몸에 어떻게 각인되며 몸을 통한 대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수탈을 배경으로 한 절대궁핍의 시대에 몸은 권력이 작용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대항이 형성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타자들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제, 억압하는 주체와 저항하는 몸의 동력학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2. 주체 중심주의와 몸

이 장에서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타자를 육체로 환원시키는 양상을 살펴본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주와 자본가는 농민과 노동자들을 자신이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육체로 간주하며 지식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용연에서는 덕호/소작인의 관계가, 인천에서는 작업감독/노동자, 신철/노동자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13) 위의 글, 34~35쪽;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피비우스 떠로서 몸』, 여이연, 2001, 9~14, 384~397쪽.

14)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현실사, 2003.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튼튼한 면민일세그리. <148>
 뭘 어때요. 그까짓 것들 무서워서 그리서요, 아이 참 <97>
 (……) 무식한 놈들에게는 매가 제일이다 하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149>

농민과 노동자들은 “어떤 특수계급 사람들에게 부리우기 위하여 살아 있는 단지 노력과 털과 고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살아 있을 뿐이다.”¹⁵⁾ 지주인 덕호는 먹을 것을 미끼로 소작인들에게는 생산을, 첩들에게는 재생산을 요구한다. 타인은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소작인은 일하는 육체이거나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그까짓것들’ 혹은 매로 다스릴 수 있는 ‘무식한 놈들’일 뿐이다.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튼튼한 면민’이라는 면장의 정의가 이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여기서 ‘밥 많이 먹는’은 첩사일 뿐, 방점은 ‘일 많이 하는’에 찍혀 있다. 주재소에서 풀려나온 소작인들이 밥도 못 먹고 타작마당에 투입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주는 소작인을 육체적 존재로 고착시키며 착취를 계속한다. 과도한 토지세와 노동수탈로 인한 착취적 현실은 소작인들을 채무자로 고착시키지만 그들은 저항을 할 수가 없다. 토지를 빌려주는 것에서 일용할 양식의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오직 지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소작인들의 삶은 온전히 그에게 매여 있기에 그들은 빛이 나날이 쌓여가는 채무의 외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작인들을 거두고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지주는 착취적 현실을 교묘히 은폐한다.

저희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 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니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 그려. 허 거 정 나두 손두 없는 사람이라

15) 강경애, 『파금』, 『조선일보』, 1931. 1. 28.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어. 하필 올 뿐인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지. <146~147>

유서방, 그까짓 놈의 새끼들…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그놈들…… 김생같은…… <145>

친자식 운운하는 담론전략은 애초의 착취관계를 은폐하며 저항의 가능성까지도 차단한다. ‘자네들을 친자식같이’ ‘너를 친딸같이’ ‘부모자식같은 우리 새에’등에서 보듯, 자신이 소작인들을 친자식같이 ‘사랑하고 길러왔다’는 언술이 수차례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부자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착취관계를 은폐하려는 일종의 담론전략이다. 이 위장 속에서 채무의 원천이 되는 수탈과 착취의 현실은 숨고 채무라는 사실만이 부각된다. 그에게 있어 소작인들은 ‘암만 그래도 몇 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일 뿐이며, 그들을 먹여 살린 자신은 ‘면의 어른이라는 지위에 값하는 존재이다.

지주들의 착취에 대한 소작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때문에 비유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소작인들이 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은 ‘은혜’와 ‘은공’이며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길러준 은공을 모르는 김생같은’ 일이 된다. 따라서 그에게 순종하는 무력한 상태야말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지주에 대한 관과 법의 엄호와 부쳐 먹던 농토를 떼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소작인들의 저항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착취정책이든 온건화전략이든 간에 농민을 수동적 육체로 간주하는 점은 동일하다.

나아가 그는 빛을 제해주는 것처럼 약간의 선심을 과시하기도 한다. 쌀을 분배하고 음식의 증여를 약속하는 그의 시혜적 허세 속에서 소작인들은 덕호에게 빛을 진 채무자 혹은 그의 시혜를 기다리는 한낱 수동적

수혜자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농민들을 노동하는 육체 혹은 ‘몇 십 년을 내 덕에 산 그까짓것들’로 간주함으로써 지주는 초월적 주체의 지위를 확보한다. ‘면의 어른’ 혹은 가장의 위치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소작인을 육체적 존재로 보기도 하고 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기도 하는 지주의 다면적 태도는 결국 그들을 무력한 수동태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수렴된다. 규율권력은 식민지 민중들의 의식은 물론 신체와 무의식까지 파고들어서 무력화시킨다.¹⁶⁾ 소작인은 도구화되고 복종하는 육체로 환원되어 채권/채무의 폐쇄회로 속에 영구히 갇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된 육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지주인 덕호의 권력이라면 지식인인 신철의 권력은 자신과 노동자를 정신/육체로 분할하고 노동자를 타자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신철은 법관 공부를 포기하고 노동자의 편에 서기를 선택할 정도로 의식있는 청년이지만, 식욕과 몸에 대한 태도는 변절을 예고한다.

따라서 그는 그의 주위를 싸고도는 수없는 사람들 중 어린애까지도 자기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286>

인천의 노동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노동착취의 실태는 신철을 노동자들의 편으로 밀착시킨다. 노동자들의 왕성한 식욕은 육체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을 반성하게 하며 이는 노동과 노동하는 육체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다는 것은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한 것밖에 더 없는 것 같았다.”<294>는 데서 잘 드러나듯, 자신의 연약한 몸에 대한 성찰은 지식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노동자에게 보다 가까이 가려는 노력, 즉 “노동자들이 쓰는 말부

16)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서장.

터 배워야 하겠다.”<293>는 결심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단은 식욕과 몸이 기준이 된 배제와 분할에 비하면 지극히 무력하다. 노동자들을 위하겠다는 결심은 관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분할은 음식과 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집이 그리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미루꾸 주..하고 손 내밀던 영철이가 그리웠다. 보다도 빨간 고추장에 두부와 고기를 넣어 끓여서 마늘 양념을 푹 쳐서 상에 놓아주던 그 두부 찌개가 그리웠다. <259~260>

신철이는 초조한 맘으로 얼굴을 돌리니 유리알 속으로 빛나는 카레라이스, 다마고돈부리, 스시 등의 요리 표본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쓸쓸히 말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순간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느끼며 획 돌아섰다. <265>

신철이는 국을 훌훌 마시며 결눈으로 보니 그의 곁에 앉은 노동자 하나는 그와 같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벌써 밥을 거의 다 먹어간다. 그의 밥술을 보니 끔찍하였다. 원 저렇게 먹고야 소화가 될 수 있나? <272>

돈과 권력을 좇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동무라 불리는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그는 음식을 매개로 지난 생활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빨간 고추장에 두부와 고기를 넣어 끓여서 마늘 양념을 푹 쳐서 상에 놓아주던 그 두부찌개’에 대한 그리움과 ‘남녀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며 먹는 빙수’에 대한 욕망은 노동운동에 대한 피로를 요약한다. 그의 식욕을 자극하는 ‘카레라이스, 다마고돈부리, 스시’ 등과 그가 그리워하는 두부찌개와 빙수 등의 음식계열체들은 노동자들이 탐식하는 밥 혹은 막걸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는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 당시로는 안락과 호사취향을 의미하는 표식이다. 노동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욕망은 식탐보다는 일종의 취향에 가까운 것이다. 빙수를 먹

는 남녀를 보거나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풍기는 ‘오리지나루 향내’를 맡을 때 옥점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는 것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그의 미각과 후각은 어디까지나 안락한 호사취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식욕의 차이는 이와 같은 분할을 더욱 뚜렷이 각인시킨다. 노동자의 입에 들어가는 밥술의 크기를 보고 ‘저렇게 먹고야 소화가 될 수 있나’ 혹은 ‘끔찍하였다’고 독백하는 그의 태도는 그/노동자의 분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끔찍하리만큼 강한 식탐은 노동하는 육체를, ‘그 밥을 못다 먹고 그만 일어나’ 나오는 신철의 식욕은 지식인의 지성을 담보한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자신의 구별짓기는 몸/정신, 배우지 못함/배움의 서열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비에게 끌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운 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식에 대한 회의와 연약한 육체에 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할은 결국 노동자의 타자화를 강화한다. 그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콧 가로막혀’ 있다는 인식 속에서 신철과 노동자는 계몽의 주체와 그 대상으로 서열화된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는 이와 같은 분할과 서열화로 인한 것이다. 노동일이 부럽다거나 노동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그의 전도된 판단 또한 이에 기인한다. 이후 그가 느끼는 회의는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무의미한 희생’이라는 결론과 함께 그가 부잣집 사위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는 남성주체와 여성의 관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통째 훌떡 들이마셔도 비린내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등의 표현에서 보듯 남성주체에 비친 여성인물은 음식에 비유되거나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에이 고약한 년 같으니,(……) 너 이달 월경은 어찌 되었나? <246>
 오나 그러면 내 들어갈 것이니 이 배를 잘 간수해라. <248>
 글썄 안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자꼬 들볶으니 글썄 살겠수? <43>
 임신이 아닌가 하였다. 따라서 차라리 이렇게 몸을 더럽힌 바에는 아들
 이라도 하나 낳아서 이 집안의 세력을 모두 쥐었으면……하는 생각도
 (……) <248>
 꿈에도 덕호를 만나 영감님! 나는 월경을 건넜세요! 아마 애기가 있지
 요……하고 목이 메어 울다가는 깨곤 하였다. <302>

덕호는 늘 음식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성욕 혹은 생식이라는 목적
 과 연관될 경우에 한한다. 여성인물들의 몸은 자신을 위한 도구일 뿐이
 다. 월경, 배, 아이 등이 대화의 주요내용인 것은 이 때문이다. 신천덕과
 선비에게 각종 시혜를 약속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
 때문이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들은 가차없이 축출된다.

여성인물들 또한 스스로를 육체적 존재로 내면화한다. 여성을 육체로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선비의 독백에
 서 잘 드러나듯 더럽힌 몸, 아들낳기의 기대 등은 그녀 스스로를 남성의
 존적인 육체로 확정짓는 예이다. “영감님! 나는 월경을 건넜세요! 아마
 애기가 있지요…”라는 간난의 애달픈 하소연 역시 마찬가지다. 덕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월경, 임신 등의 육체적 범주에
 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
 는다.

그들도 처음 며칠은 이 밥에 배탈을 얻어 심여 일이나 설사까지 하고도
 할 수 없이 이 밥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먹어나니 이젠 배를 앓거
 나 또는 처음 먹을 때처럼 석유내가 몹시 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배고픈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고……하였다. <310~311>

여성인물을 대상화하는 주체가 지주인 덕호에서 공장의 감독으로 변화하였을 뿐이다. 재생산을 위한 육체가 생산과 훈육을 위한 육체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이다. ‘먹는’ 주체가 아니라 ‘먹히는’ 대상이었던 여성은 이제 음식을 통한 훈육의 대상이 된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서부터 훈육은 시작된다. 공장에서 제공 하는 상상을 절하는 음식에 대한 거부는 결국 적응으로 귀결된다. ‘석유 내 같은 냄새가 후끈 끼치는 밥’과 ‘비린내가 나서 영 먹을 수가 없는’ 새우젓으로 구성된 식사에 대한 몸의 반응은 배탈, 설사 등 격렬한 저항으로 드러나지만 이는 인간대접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은 점차 이 음식들에 익숙해진다. “너희들이 배고픈 맛을 못봐서 그러누나.” <310>라는 선배여공의 말처럼 이들 역시 배고픈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여성은 음식을 통해 훈육되고 남자에 의해 유린당하는 수동적 대상일 뿐이다.

이상에서 주체중심주의적 권력이 타인을 육체로 간주하고 수동적 수혜자로 각인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체들의 기획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몸의 저항에 부딪힌다. 이제 타자화된 몸의 대응양식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3. 음식과 질병을 매개로 한 몸의 대응양식

육체로 간주되던 존재들은 식욕을 통해 발화를 시작한다. 동원가능한 육체로만 간주되던 존재가 바로 그 몸을 통해 스스로를 가시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음식을 향한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는 첫째이다. 그가 나중에 노동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은 이와 유관하다. 첫째의 식욕은 인간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답을 추동한다. 지식인인 신철이 첫째를 계몽하는 역할을 하지만 첫째의 식욕 속에는 이미 각성이 예비되어 있는 셈이다.

어머니의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첫째는 어머니가 밥이라면 그저 이 배가 터지도록 먹으련만...하였다. <167>

누구나 상대의 눈동자에서 담배 먹고 싶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면사무소에 앉아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에 걸리는 것이 싫어서 누구 한 사람 쉬려고 하지 않았다. <151>

“배가 고파서 혈수할수없이 그랬다!” 역시 자기도 배가 고프니 혈수할수없이 그랬다. 그러나 법에는 걸려들 일이다. 그때는 배고픈 차이라 아무 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이 그저 답답히 먹을 것만 찾기에 몰랐으나 이렇게 딱이며 밥을 먹고 나니 자신은 법에 걸린 노릇을 한 가지 하였던 것이다. <176>

추수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여름내 가을에는 하얀밥을 준다!고 얼르던 그 말!”<152>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은 추수한 벼들이 “귀엽고 아름다운 빛만 보이고 나서 맘 놓고 만져보기도 전에 덕호의 창고로 들어가 버리고”<152> 말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밥이라면 그저 이 배가 터지도록 먹으련만’이라는 독백이 떠도는 현실은 그 자체로 병리적적이다. 죽도록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욕을 넘어 착취적 현실에 대한 고발과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의 식탐이 개인적인 욕망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노동하는 육체만 허용되고 먹어야 하는 조건은 외면되는 현실에서 식욕은 자신의 몫에 대한 주장을 유도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요구를 의미하며 소설의 배경이 식민지근대의 농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누구나 상대의 눈동자에서 담배 먹고 싶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걸리나마 얼근히 먹고나서 농지거리나 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술과 담배로 상징되는 휴식과 여기는 ‘면 사무소에 앉아 있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감시에 반하는 인간권리의 한 표현이다. 그것은 인간 이하의 노동에서 자신을 추스르게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는 인간적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법의 실체에 대한 자각 역시 식욕에 의해 추동된다. ‘배가 고프니 할 수 없이 그랬다. 그러나 법에는 걸려들 일이다’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 식탐은 밥을 가진 자의 편에서 있는 법의 실체를 직시하게 한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곧 법에 걸리는 길이라는 사실의 자각이 법의 본질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자신은 이법에 걸려들어가고 있는 것” <157>이라는 첫째의 두려움과 “법이란 것이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는 벌써 이 법이란 있었던 것같이 생각되었던 것” <176>이라는 이서방의 생각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법이해의 양상들이다. 약자를 대상으로 준비된 법망의 실체를 이들은 몸의 욕망을 통해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와 그 어머니가 법과 제도를 위반할 때만 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첫째가 주저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나아가 어머니의 매움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이와 같은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법은 단지 재산과 권력의 상징일 뿐 도덕적 위엄과는 무관하다. 법은 타락한 현실의 지지대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법의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기에 그는 법의 위반에 보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첫째의 식탐은 곧 기본적 생명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지주의 착취와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몫을 담당한다.

식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남성인물과 달리 여성인물들은 욕망의 주체이기보다는 대상에 가깝다. 하지만 욕망과 훈육의 대상인 몸은 또한 주체의 폭력을 드러내고 그것에 저항하는 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몸의 발화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주체의 능동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애, 이놈의 새끼야, 넌 트림까지 하지 않니. 처먹었기에 트림을 하지. 이놈아, (……) 그것을 같이 먹겠다고 가지고 오니까 저만 다 처먹어. 어데 보자 이놈아, 에미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데 있냐, 하늘이 있니라! 응… 응… <168>

첫째 어머니는 감추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내 놓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후에야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리고 이서방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시유?” <171>

식욕과 거식을 통한 저항, 질병과 죽음을 통한 말하기 등은 여성인물이 드러내는 피해의 궤적인 동시에 극복의 노력이다. 첫째의 어머니는 식욕을 드러내고 선비는 식욕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대립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저항으로 수렴된다. 첫째의 어머니가 드러내는 식욕은 여성욕망의 가시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모성의 이름으로 늘 억압되어온 식욕은 결국 모성과 충돌한다. ‘저만 다 처먹어. 어디 보자 이놈아’라며 아껴놓은 밥을 다 먹어버린 아들을 원망하는 어미의 독백이 이를 잘 설명한다. 그녀의 식욕 드러내기는 회생적 모성이라는 통념을 넘어선 여성의 자기주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의지하던 이서방이 소식이 없어 무척 걱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한 그릇이나 다 먹은 후’에야 그의 안부를 물었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 대립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선비의 식욕부재 또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음식은 대개 덕호가 여성을 유혹하는 매개로 동원되기에 식욕을 드러내는 것은 곧 그에 대한 순응을 의미한다. 즉 그녀가 식욕을 드러내

지 않는 것은 덕호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식욕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첫째와 달리 그녀는 식욕의 감추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셈이다.

그녀의 병과 죽음 역시 몸에 의한 발화의 양상으로 해석됨으로써 피해와 희생이라는 의미로만 수렴되지 않는다. 모성과 충돌하는 식욕, 부재하는 식욕 등이 여성의 주체적 욕망을 담지하는 매개이듯, 질병과 죽음은 권력의 폭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교란시키는 유효한 방식이다.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으나 입이 깍 붙고 떨어지지 않았다. (……) 선비는 이제야 자기의 병이 심상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리고 기침할 때마다 침에 섞여 나오는 붉은 실 같은 피도 더욱더욱 관심되었다 <383~384>

여기서 선비가 질병을 인지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질병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노동착취가 그만큼 심각하였음을 잘 드러낸다. 공장에서 요구되는 노동량은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게 만든다. 죽기 직전까지도 병원비와 조퇴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몸의 소외는 심각하다. 병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퇴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그녀가 속한 현실이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이 깍 붙고 떨어지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아프다는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이 죽음과 맞먹는 무게를 가지는 것이다.

비록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나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다. 질병은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충동의 발

현이다. 병을 통해서라야 존재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수잔 손탁은 은유에서 벗어나 질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낭만적이라는 폐병의 은유조차 여기서는 성립되기 힘든 사치이다. 은유는커녕 폐병이라는 진단조차 살아생전에는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비의 질병은 과도한 노동과 인간이하의 식사를 강요하는 세계의 폭력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에의 배려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사실은 남성중심적 식민지 근대라는 삼중고에 처해진 여성의 입지를 잘 드러낸다. 훈육과 순치의 대상으로 고착된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 순간,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폭력에 노출된 몸은 그 자체로 궁극적 현실이며 폭력을 증명하는 언어이다.¹⁸⁾ 죽음으로써 자신을 알리는 아이러니는 당대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기를 배려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그녀가 흘린 피와 가래 그리고 그녀의 시체는 발화를 계속한다. 공장의 노동착취로 인한 질병,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비의 궤적에 비체의 상징성은 능동적 힘을 부여한다. 특성이 아니라 경계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 비체, 즉 애브젝트는 주체의 일부였지만 통일된 경계를 세우기 위해 거부된 존재로서 애매모호하고 간극에 위치한 복합적 혼합물이다. 이는 주체가 분리를 체험하는 근원적 공간인 어머니의 몸에 연원을 두며 전오이디푸스적 어머니의 몸은 주체와 분리된 이후에도 주체의 무의식 속에 흔적으로 남아 상징질서를 위협하는 공포의 힘으로 존재한다. 애브젝션은 사회적 금기와 경계설정에 저항하는 사회적 위협을 상징하며 배설물에 대한 혐오

17)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도서출판 여이연, 2006, 73쪽.

18) 위의 책, 162쪽.

와 금기는 이와 같은 경계의 침범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를 원용할 때 서사의 도입부분에서 소개된 원소의 전설은 『인간문제』 전체의 지향점이자 세 인물의 운명을 정향²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계 침범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불안의 징후가 된다.

그래서 울고울고 또 울어서 그 눈물이 피고 피어서 마침내는 장자침지네 고래 잔등같은 기와집이 하룻밤 새에 큰 못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 못이 즉 내려다보이는 저 푸른 못이다. (……) 이 못의 깊이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동네 농민들은 어디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쫓아가서 원소의 전설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손이 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전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애들로부터 어른까지 이 전설을 머리에 꼭꼭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소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8~9>

몸의 경계를 넘나드는 눈물은 또한 사회적 경계에 대한 침범에 은유된다. 가난한 농민들은 ‘죽거나 나쁘거나’의 운명에 처단된 약자이지만 그들의 눈물은 그 피해를 넘어서게 하는 매개가 된다. 농민의 눈물은 지주의 고래 잔등같은 기와집을 큰 못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물로 드러나는 그들의 호소는 피해자/가해자, 소작인/지주권력의 경계를 넘는 비체의 언어이다. 피해자의 무력한 눈물이 모여 가해자인 지주를 응징하고 그를 옹호하는 법과 제도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자손이 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전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꼭꼭 기억하며 이 원소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계를 교란시키는

19) 박주영, 『여성의 몸』, 앞의 책, 72~90쪽.

20) 소영현, 앞의 글, 33쪽.

눈물의 상징성에 대한 의지에 다름 아니다.

선배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생성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것 또한 눈물과 피의 매개에 의해서이다. 비체의 은유를 적극적으로 전유할 때 선비의 죽음은 봉헌되는 입장²¹⁾에서 발언하는 주체의 위치로 이동한다.

그때 감독이 그의 앞을 지나치는 듯하여 그는 입을 떼려 하였다. 그 순간 기침이 콧 나오며 가슴에서 가래가 끓어 올라오므로 그는 얼핏 입에 손을 대었다. 기침이 뒤를 이어 자꾸 나오려 하는 것을 참으려고 애를 쓸 때 마침내 그의 입에 댄 다섯 손가락 새로 붉은 피가 주르르 흐르며 선비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385>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멍치가 되어 콧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멍치! 이 멍치는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 이 멍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389~390>

아프다는 말을 하기 위해 입을 떼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기침이고 가래이고 붉은 피이다. 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 점액질들은 권력의 경계에 대한 침범의 은유이다. ‘입이 깎 붙고 떨어지지 않아’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나 몸의 말은 이를 대신한다. 그녀가 입을 떼는 순간 터져 나온 기침과 피 그리고 뒤이은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못다 한 말을 대신하는 몸의 언어이다. 몸의 말로서 강렬히 드러나는 그의 주장은 경계를 넘어서는 비체의 언어이다. 그녀의 죽음은 이를 더욱 강화한다. 시체는 애브젝션의 극한이며 모든 것을 침범하는

21) 꽃 피는 봄에 노동계급의 여전사 선비의 죽음을 봉헌함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를 연출하고자 했다고 최원식은 해석한다. 최원식,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의 성과와 한계」, 『인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 405쪽.

경계이다.²²⁾ 그것은 삶을 감염시키는 죽음이다. 선비의 시체는 ‘시커먼 멍치’가 되어 그가 살아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며 이는 ‘점점 확대되어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만든다. 선비의 주검은 발화의 주체가 되어 첫째를 이끌며 권력의 경계를 감염시켜 뒤흔들어 놓는다. 비체가 주체의 경계를 교란하듯, 사회가 낳았으나 사회가 저버린 비체들이 경계에 저항하며 그것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비체가 흔히 불결과 공포로 의미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결과 공포는 비체 자신의 속성이 아니라 경계가 교란되는 데 대한 주체의 공포가 투사된 결과이다.²³⁾ 그녀가 토한 피와 가래 그리고 그녀의 주검이 불러일으키는 불결과 공포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포는 ‘눈에서 불덩이가 펄펄 나는’ 첫째의 분노에서 잘 드러나듯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 피와 죽음으로 실현된 그녀의 말하기가 첫째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각성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선비의 주검에 직면한 첫째의 눈앞에 점차 확대되는 시커먼 멍치는 ‘몇천만 년을 두고 싸워 왔던 인간문제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며 이는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이는 또한 원소전설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기대와 상통한다. 식욕은 충족되지 않고 몸으로 말하기는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이처럼 몸의 발화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서 인간문제의 해결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몸을 통한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몸이 매개하는 상호성의 윤리적 의미를 탐색해보도록 한다.

22) 박주영, 앞의 책, 83쪽.

23) 임옥희,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도서출판 여이연, 2006, 307쪽.

4. 상호육체성의 윤리

초월적 주체와 내재적 육체라는 이분법에 바탕한 이성중심주의와 달리 상호육체성의 윤리는 서로를 동일한 지평에 놓는 데서 획득된다. 나/타지는 정신/육체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동일한 지평에 자리한다. 몸으로 등장하는 타인의 존재는 몸으로 구성되는 나의 주체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주체를 형성하게 한다. 몸에 바탕하여 엄마의 매춘을 이해하는 첫째의 입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누가 잘못하고 싶어 잘못하는 줄 아느냐? 나도 배고파서 혈수할수 없으니 그랬다! 너두 지내 봐라! 어디 이놈!

첫째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띄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찌르르 울렸다. (……)어머니의 말이 살대와 같이 그의 가슴폭을 선뜻 찌르는 듯하였다. <159>

애초에 첫째는 자신/엄마를 판단주체/대상, 정신/몸, 도덕/타락의 이분법에 배치하였다. 스스로를 엄마의 몸과 타락을 판단하는 주체의 위치에 두고 엄마의 성적 타락을 가차 없이 단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상호육체성의 인식은 양자를 유사한 지평에 위치시킨다. ‘배고파서 혈수할수 없으니 그랬다’는 엄마의 탄식에 ‘귀가 번쩍 띄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 첫째의 반응은 취약한 육체에 바탕한 공감에 다름 아니다. 자신/엄마는 판단의 주체/대상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수평적 지평에 위치하게 된다. 공동체적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상호육체성의 인식은 바로 그 몸을 도구화한 주체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유도한다. 자신들의 몸을 동원하고 착취한 지주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다. “덕호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첫째는 전신의 피가 머리로 치밀고 온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169>는 반응은 이 때문이다.²⁴⁾

지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작인들에게 빛을 받으러 갔으나,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민수의 태도는 상호육체성의 관계를 더욱 잘 드러낸다.

어마이 배고파!

민수는 이 소리가 꼭 선비의 음성 같아서 깜짝 놀랐다. (……)다음 순간 그것이 선비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웬일인지 가슴이 짜르르 울리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 (……) 그가 벌떡 일어났을 때 그는 무의식간에 그의 거지 안에서 일 원 짜리 지화를 꺼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36>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 민수는 지주인 덕호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몇 년째 빛을 못 갚고 있는 소작인의 집으로 빛을 받으러 간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방문한 입장이나 상호육체성의 인식은 이와 같은 관계를 변화시킨다. 몸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는 것은 그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다. 상상을 절하는 밥상의 참담함과 그 밥상을 향한 아이들의 욕망은 채권/채무의 법리적 관계를 상호육체성의 윤리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도무지 식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아이들에게서 민수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짜르르 울리면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의 원천은 먹어야 사는 육체의 한계에 대한 공감이다. 이에 바탕하여 민수는 채권자로서의 입장을 버리고 빛을 받기는커녕 “애들 밥한 끼 해주!” <36>라며 돈을 도로 쥐어주고 돌아온다. 배고픔에 취약한 몸을 가진 인간에 대한 안쓰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노릇을 해야 하는 운명에 대한 공감은 채권/채무, 혈연/비혈연의 잔혹한 서열을 넘어

24) 물론 이는 더 이상의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으나, 이 글에서는 전술한 그로츠의 말처럼 몸에 바탕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중시하고자 한다.

서게 한다. 이처럼 상호육체성에 바탕한 공감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타자를, 타자에게서 자신을 겹쳐 읽게 함으로써 수직적 일방적 서열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여성인물들 역시 상호육체성의 인식을 통해 연대성을 획득한다. 덕호라는 남성주체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이는 두드러진다.

그가 덕호에게 유린을 받기 전만 하여도 간난이를 아주 몹쓸 여자로 알았지마는, 그가 한번 그리 된 후에는 웬일인지 꿈에도 간난이를 종종 만나 보고 서로 붙들고 울기까지 하곤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까말까 하고 망설일 때마다 문득 그의 머리에는 간난이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간난이가 여기 있을 때 어찌서 자기는 그의 맘을 이해해주지 못하였던가? 따라서 다만 한 마디라도 그를 붙들고 위로나마 해주지 못하였던가…… 하니 기가 막혔다. <239>

그의 눈에는 눈물이 샘솟듯 하였다. 간난 어머니는 이 순간 저것이 확실히 간난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였다는 것을 무언중에 깨달았다. 동시에 저것의 맘이 오죽하랴! 이 죽일 놈, 저놈이 내 생전에 벼락을 맞지 않으려나…… <242>

간난이와 선비는 덕호의 첩이 되었다가 버림받은 체험을 통해 오히려 타자를 향한 윤리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과거의 선비는 도덕적 주체의 입장에서 덕호의 첩이 된 간난이를 타락한 육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자신 역시 유사한 입장에 처해짐에 따라 남/녀, 초월적 주체/타락한 육체의 이분법에 내재된 폭력성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주체의 시선에 편승하여 피해자인 간난이를 타자화시킨 과거의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유사한 피해의 경험은 타자를 타락한 육체로 간주하는 서열화의 관계

에서 일탈하여 육체를 가진 존재의 취약성이라는 상호성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선비와 간난이 모녀는 자신의 몸에 가해진 피해경험을 타자를 배려하고 끌어안는 매개로 삼는다. 상처에 취약한 육체에 대한 인식은 다른 여성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선비의 풀기 없는 것을 바라볼 때 흡사히 자기 딸이 앓아 있는 것 같다’는 간난 어머니의 생각과 ‘이대로 두면 공장에서 일하는 순진한 처녀들이 감독의 농락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다’는 간난이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피해자였던 과거의 경험은 오히려 취약한 육체에 대한 공감에 바탕한 상호육체성의 윤리를 확보하게 한다. 공동체적 주체의 형성은 ‘덕호와 같은 수많은 적’으로 구성된 세상을 발견하게 하며 그 발견은 다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나와 ‘우리’의 발견을 추동한다. 이처럼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는 여성 육체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상호육체성의 윤리에 기초하여 이제 이들은 남성주체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정신/육체의 이분법을 의심하며 남성의 권력 자체를 농담화한다.

만일 선비가 확실히 계급의식에 눈이 띄었다면 감독을 그의 손 가운데 넣고 농락해 가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46>

내가 이래가지고야 앞으로 일해갈 수가 있나? 나는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거짓말을 곧잘 해야 한다! <361>

그때 선비는 간난이가 일상 하던 말이 문득 생각키었다(감독을 만나면 너는 뽀로통해만 있지 말고 더러 웃는 체도 해 보이렴. 그래서 네 태도를 저들이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선비는 간난의 말이 우스워서 빙긋이 웃었다. <365>

마침내는 그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울던 자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자기!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가! <367~368>

선비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은 피해자화되고 타자화된 자신을 넘어서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된다. 순결/타락, 남/녀, 정신/육체의 서열을 넘어 그 경계를 설정한 주체를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된다. “그때의 선비는 지금의 자기와 같지 않았다” <368>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정조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과거’의 인물로 정리된다. 나아가 자신들을 압박해왔던 남성권력, 순결, 정조 등의 관념을 농담으로 전화시킨다. ‘거짓말을 곧잘 해야 한다’는 그녀의 결심은 이와 같은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수동적 피해자이기보다는 ‘태도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 넘기는 주체이고자 한다. 그녀가 ‘감독을 손가운데 넣고 농락해가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간난이의 말을 상기하게 되는 것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남성권력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농락의 대상인 것이다.

이처럼 양자 모두를 동일한 지평에 위치시키는 상호육체성의 인식은 연대의 전제를 이룬다. 상호육체성의 인식은 분할과 서열화의 인간관계를 넘어 상호성과 연대의 윤리를 제시하며 나아가 자신을 억압하는 권력을 농담화하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음식과 질병을 통해 『인간문제』에 나타난 몸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몸은 권력과 저항의 벡터가 길항하는 장소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배권력에 대한 몸의 대응양식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설은 식민지 근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철저했으나 그 대응방식의 탐색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음식과 질

병을 매개로 한 몸의 능동적인 대응양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적 저항방식의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재산 혹은 지식을 가진 주체가 자신을 초월적 주체로, 타자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육체로 대상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명령하는 주체/복종하는 육체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지주는 소작인들을 생산노동에 여성들을 재생산노동에 배치한다. 지주가 확보한 초월적 주체의 위상은 아버지 혹은 어른의 면모를 갖추므로써 수탈과 착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은폐한다. 지식과 자본권력을 가진 남성주체 역시 정신/육체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여성과 노동자의 타자화를 수행해나간다.

3장에서는 권력에 의해 육체로 간주되는 존재가 바로 그 몸을 통해 권력에 대응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노동하는 육체만 허용되고 먹어야 사는 육체는 외면되는 현실에서 식욕과 질병은 일종의 말하기 역할을 담당한다. 식민지 근대라는 절대궁핍의 시대에 첫째가 드러내는 식탐과 선비의 질병과 죽음은 그 자체로 문제제기의 몫을 한다. 특히 선비의 질병과 죽음은 비체의 상징성을 통해 실패를 넘어서는 능동성을 획득한다. 식욕은 충족되지 않고 질병은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몸의 발화를 통해 의의를 제기하는 데서 인간문제의 해결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초월적 주체/육체적 대상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의 몸이 상호간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상호육체성의 윤리에 기초하여 소설의 인물관계를 살펴보았다. 상호육체성을 매개로 작중인물들은 채권/채무에 기초한 마름/소작인의 관계에서 공감의 관계로, 덕호를 사이에 둔 경쟁관계에서 연대의 관계로 나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인물은 남성중심적인 순결/타락의 이분법에서 일탈하여 정조관념을 농담화하는 여유를 획득한다.

음식과 질병 그리고 몸은 계급과 젠더의 경계가 구획되고 또 해체되는 매개이다. 권력은 인간을 몸으로 환원시켜 도구화하고 인간은 몸의 욕구를 통해 그 권력에 이의를 제기한다. 몸의 욕망을 뚜렷이 각인시킴으로써 소설은 권력에 대항하는 능동성과 상호육체성의 윤리적 차원을 확보한다. 음식과 몸을 통한 접근은 관념이 아니라 몸과 생존에 바탕한 인간 문제의 제시와 몸 전체로 밀고 나가는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강경애 소설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의 지점을 앞당긴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강경애, 『인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최원식 책임편집).

강경애, 「과금」, 『조선일보』, 1931. 1. 28.

2. 참고논저

김이수,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사회학자가 본 우리 소설,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335~348쪽.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김진아, 「시각과 쟁점: 여성의 몸,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창작과비평사, 2005, 20~44쪽.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화사 연구』 제23호, 민족문화사학회, 2003, 250~276쪽.

김경수, 「강경애 장편소설 재론」, 강경애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 심포지엄 발표문, 2006. 5. 12.

서영인, 「강경애 문학의 여성성」, 김인환 외, 『강경애, 시대와 문학』, 랜덤하우스, 2006, 96~115쪽.

소영현, 「‘육망’에서 ‘현실’까지, 주체화의 도정: 강경애의 『인간문제』 검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1, 31~51쪽.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 여이연, 2001.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 출판부, 1997.

이상경, 「여성문학의 두 얼굴」,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민음사, 2006, 157~176쪽.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도서출판 여이연, 2006.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현실사, 2003.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4, 33~56쪽.

홍기돈,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여성』, 『강경애, 시대와 문학』, 김인환 외, 랜덤하우스, 2006, 71~95쪽.

하정일, 『강경애 문학의 탈식민성과 프로 문학』, 『강경애, 시대와 문학』, 김인환 외, 랜덤하우스, 2006, 11~27쪽.

Abstract

Body and the Metaphor of Illness and Food

: Reading Kang, Kyung Ae's 『Ingan Munje(of Human Issues)』

Lee, Kyung

The body discourse can provide so many useful and salient points of reference in reading Kang, Kyung Ae's 『Ingan Munje(of Human Issues)』 (1934), which this article analyses. According to this discourse, the ruling power tries to reduce human being into material body and make the body subordinate to its domination, while human being may pose some objection against the domination via such a body. The novel shows so clearly that the latter process can be represented in this real world. The subject who has properties and/or knowledge can treat the others as the bodies, who, in turn, respond to and challenge such treatment through presentation of the desires that stem from the bodies. Illness and food may constitute the main signals that unveil violent nature of social system and show solemn declaration of being humans who stand against such violence. Kang's novel has made a salient success in these aspects. It depicts secular desires of the female bodies so vividly, from which resisting power to challenge the dominant ruling powers and the ethics of the *intercorporité* are firmly secured. The *intercorporité* of the novel can make ever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which is leaving apart from competition and conflict and moving toward sympathy and solidarity. It opens small but important possibility of feminized way of resist against de-humanizing powers.

Key words : subject, *intercorporité*, illness and disease, food, body discourse, abject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